"속 시원한 사이다 팩트"… '부암동' 선사하는 대리만족

정혜 · 홍도 · 미숙 그리고 수겸 등
복자클럽 인물 처한 상황 시청자 공감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한 가지, 바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사는 것'이다.

'부암동 복수자들'이 속 시원한 사이다 팩트로 현명한 사회생활, 원만한 인간관계,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주고 있다.

tvN 수목드라마 '부암동 복수자들'(극본 김이지, 황다은, 연출 권석장, 제작 스튜디오드래곤, 제이에스픽쳐스)이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는 이유는 복자클럽의 인물들이 처한 상황이 주는 공감.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복수를 볼 때마다 느끼는 대리만족과 더불어 그 복수가 '나도 한 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주는 것이다.

특히 극중 정혜(이요원)나 홍도(라미란)의 사이다 한 방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대변해 통쾌함을 선사하며 앞으로의 전개에 견인차가 되고 있다.

먼저 재벌가의 혼외자식으로 스스로를 '홍길동'이라 칭하며 늘 참기만 했던 정혜(이요원)의 첫 사이다 팩트 폭력은 같은 처지의 수겸(이준영)을 위해서였다.

"엄마 소리도 민망하겠다. 한 집에 어떻게 사니?"라며 "비위도 좋다"면서 비아냥거리는 이복언니 김정윤(정애연)의 화살이 수겸을 향하자 정혜는 "태어난 게 저 아이 잘못은 아니니까요"라고 말했다.

수겸을 감싸면서 동시에 과거의 정혜 자신을 위한 한 마디. 말하는 정혜와 듣는 수겸에게 모두 위로가 된 사이다 한 사발이었다.

이후 차에 홀로 탄 정혜가 괴로운 듯 고개를 숙였고, 수겸 역시 그녀가 상처를 받은 줄만 알았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다.

"처음이다. 그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 해본 거"라면서 어깨까지 들썩이며 그렇게 웃어본 적은 처음이라는 듯 마음껏 웃었던 정혜. 그녀의 통쾌한 마음이 곧 시청자들의 마음으로 통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 서민층을 대표하는 홍도(라미란)도 갑질을 행사하는 주길연(정영주)을 향해 당당하게 맞섰다.

아들 희수(최규진)에게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는 누명을 씌우고도 안하무인으로 구는 주길연에게 어쩔 수 없이 무릎까지 꿇었던 홍도.

그녀가 복자클럽의 도움으로 당당하게 변신해 돈 걱정 없는 여유 있는 모습으로 "고소하시죠"라는 말과 함께 "합의금 낮추든지! 고소해서 나랑 개싸움 한번 해보든지!"라고 외치던 모습은 돈과 위치를 이용해 갑질을 하는 안하무인들을 향해 을이라면 한 번쯤 상상해 봤을 법한 상황이었기에 더 큰 공감을 얻었다.

진심을 담은 도희의 팩트는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아주 가끔, 술이 들어가면, 그럴 때 아니면 평소엔 좋은 사람"이라고 폭력남편을 두둔하는 미숙에겐 "그것만 빼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거 하나 때문에 나쁜 사람인거다"라며 진짜 언니처럼 진심을 담아 조언했다.

이렇듯 이제 혼자 아닌 새로운 가족이 된 '복자클럽' 속에서 정혜와 홍도가 '할 말은 하고 사는 법'을 내보인 가운데,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소심한 복수자 미숙(명세빈)이 선보일 변신과 사이다는 무엇일까.

"이제 참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요"라는 수겸의 말처럼 그저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왔을 뿐 잘못한 것 하나 없는 미숙의 사이다 전개가 귀추가 주목된다.

매주 수, 목 밤 9시30분 tvN 방송.

김해숙→차화연→김선영, 안방 울린 '엄마의 마음'

따뜻한 엄마의 마음이 묻어나는 편지가 안방극장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 드라마, 영화 속 가족의 모습이 리얼하게 그려지면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가족드라마의 강자 KBS 주말드라마를 비롯해 지상파, 케이블 평일극에서도 가족 구성원이나 그들의 모습이 현실보다 리얼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

이 중에서도 엄마의 모습이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작품 속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엄마지만 자식들을 향한 모성애는 한결 같다. 특히 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엄마의 속마음이 담긴 편지는 눈물샘을 자극하기 충분하다.

최고 시청률 36.5%(이하 닐슨코리아 기준)를 기록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KBS2 '아버지가 이상해'(극본 이정선, 연출 이재상)'에서는 김해숙이 이유리의 결혼식 장면에서 드러내지 못했던 속마음을 밝혀 안방극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결혼 준비부터 결혼식 전날까지 딸에게 퉁명스럽게 대하던 김해숙(나영실 역)은 이유리(변혜영 역)의 결혼식날 마이크를 잡고 "속 좁게 굴어서 미안하다. 너무 많이 서운해서 그랬다. 넌 엄마의 자부심이다. 부족한 부모 만나 고생 많았는데 잘 자라줘서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엄마의 진심을 알게 된 이유리가 김해숙과 포옹하는 장면은 '아이해'의 수많은 명장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남았다.

'엄마의 눈물'은 MBC '병원선' 차화연(오혜정 역)이 이어 받았다. 특별출연으로 하지원(송은재 역)의 엄마로 출연한 그는 딸을 향한 절절한 모성애를 드러냈다. 하지만 하지원은 엄마의 부탁이 매번 자신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모진 말만 쏟아냈다. 이후 차화연이 사망하면서 하지원은 따뜻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고, 엄마가 남긴 유품을 보게 됐다.

차화연이 하지원에게 남긴 유품은 다름아닌 레시피북. "언젠가 사랑을 시작할 딸에게, 사랑할 시간조차 뺏어버린 못난 엄마가"로 시작하는 레시피북에는 미역국, 패물파전, 곰탕 등의 레시피가 그림과 함께 담겼다. 특히 자신에게는 모질게 대해도 되지만 사랑하게 될 남자와 아이에 대해서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달라는 부탁이 담겨 있어 절절한 모성애를 느낄 수 있었다. 이 레시피북은 차가웠던 하지원이 처음으로 오열하며 무너지는 모습으로 이어져 명장면으로 남았다.

최근에는 김선영이 안방극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tvN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서 정소민(윤지호 역)의 엄마로 출연 중이 김선영(김현자 역)은 가부장적인 남편 김병옥(윤종수 역) 때문에 기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는 딸을 챙기며 든든한 지원군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김선영은 편지로 눈물샘을 자극했다. 그는 정소민이 이민기(남세희 역)와 결혼식을 올릴 때 "(윤)지호가 나중에 글쓰고 싶다고 하면 글쓰게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나중에라도 글 쓸 수 있게 꿈 포기 안하고 엄마처럼 안 살게 해달라"며 "(윤)지호는 한 번 울면 잘 못 멈춥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울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앞서 결혼을 두고 티격태격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김선영은 편지를 통해 진심을 전달하며 안방극장을 울렸다.

말, 레시피북, 편지 등 전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건 똑같다. 바로 자녀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다. 극 중 상황과 모녀 관계, 배우들의 명품 연기가 어우러지면서 안방극장은 '엄마의 진심'으로 눈물바다가 됐다.

"이효리 · 정려원 지원사격"
엄정화, 韓 마돈나의 귀환

가수 엄정화가 11월 가요계에 컴백한다. 이효리와 정려원은 엄정화의 앨범에 피처링으로 참여해 '마돈나의 귀환'에 힘을 실는다.

엄정화의 음악 활동을 지원 하고 있는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24일 오는 11월 컴백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 중에 있다. 이번 앨범은 지난해 발매한 '파트1'을 이어갈 '파트2'가 될 것으로 '파트1'에 수록되지 않은 5곡이 실릴 예정이다. 현재 새 앨범 뮤직비디오는 이미 지난 20일 촬영이 끝났으며 앨범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엄정화는 앞서 지난해 12월 'D.I.S.C.O' 이후 8년 만에 선보인 10집 앨범 'The Cloud Dream of the Nine'으로 독보적인 콘셉트와 음악,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현재 진행형' 가수임을 알리기도 했다.

이번에는 가수 이효리와 배우 정려원이 엄정화의 정규 10집 '파트2'에 피처링으로 참여한다. 앞서 지난해 이효리와 컬래버레이션으로 선보인다고 알려졌던 곡 '딜루전(Delusion)'이 이번 정규 10집 파트 2에 수록될 계획이다.

앞서 이효리가 지난 7월 정규 6집 앨범을 발매한 가운데 엄정화는 당시 "마음도 모습도 음악도 깊어진 이효리! 반갑다. 멋지다 효리야"라며 응원했고, 이에 답하듯 이효리도 엄정화에 대해 "동기 부여를 주는 존재"라면서 "저에게도 좋은 자극이 됐다"며 남다른 우정을 드러낸 바 있어 두 사람의 작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여기에 정려원도 가세했다. 정려원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포토그래퍼(Photographer)'도 이번에 발매될 '파트2'에 수록되는 것. 2000년 그룹 샤크라로 데뷔한 정려원은 2003년 이후 영화 OST 참여 이외에는 이렇다 할 가수 활동을 해오지 않았기에 엄정화의 앨범에서 어떤 모습을 선보일지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가수로 돌아오는 엄정화지만 그동안 연기활동도 꾸준히 병행해왔다. 지난 8월 종영한 MBC 주말 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에서 유지나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기도 했다.

그 가운데 꾸준히 신보 작업에도 매진해왔다는 후문이다.

한국의 마돈나로 자리 잡은 엄정화가 보여줄 독보적인 콘셉트가 기대감을 더하는 가운데 이효리, 정려원과 함께한 작업이 어떨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칙위반 수학여행' 1차 포스터 공개

아이콘의 새 예능 '교칙위반 수학여행'이 1차 공식 포스터를 처음 공개했다.

JTBC '교칙위반 수학여행'은 24일 오후 첫 번째 대표 포스터를 완성하며 본격적인 첫 방송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포스터는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아이콘의 모습으로 눈길을 모은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 삼아 포즈를 취하고 있는 청춘 남녀들의 표정에서 설렘이 느껴진다.

특히 제목 위에 '한일 청춘 남녀들의 몹시(?!) 건전한 만남'이라는 문구가 웃음을 자아낸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살아온 이들이 여행을 통해 어떤 '우정 케미'를 이룰지 궁금증이 커진다.

'글로벌 우정 프로젝트-교칙위반 수학여행'은 국내 최초로 기획된 한일 스타들의 우정 프로젝트다. 아이돌 그룹 아이콘 멤버들이 '양싸고' 학생이 되어 수학여행을 떠나는 콘셉트. 아이콘과 함께 일본의 라이징 스타 7명이 '동경여고' 학생으로 출연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다.

여기에 정형돈, 조세호, 김신영 등 전문 예능인들의 지원사격으로 웃음까지 보장한다. 풋풋한 청춘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웃음까지 잡겠다는 포부다.

11월 4일부터 매주 토요일 밤 12시 20분 JTBC에서 볼 수 있다.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10월 25일 수요일 (음력 9월 6일)

★ 혜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

▶쥐띠 36년생 행운이 찾아든다 48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60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72년생 희비가 교차하니 무리수는 금물이다.84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

▶소띠 37년생 혼란스러워도 점차 맑아진다.49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61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73년생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85년생 효도하는 마음을 잃지마라.

▶호랑이띠 38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50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62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74년생 기다림을 알아라.86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토끼띠 39년생 만사가 해결된다.51년생 산행을 삼가라.63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75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87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용띠 40년생 외출을 삼가라.52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64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6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88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뱀띠 41년생 화를 다스리고 건강에 유의해야한다.53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65년생 문서 계약운이 있다.77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한다.89년생 꿈을 접지마라.

▶말띠 42년생 까치가 집 주위를 맴돈다.54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66년생 누적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78년생 순풍에 돛을 높이 올린다.

▶양띠 43년생 마음을 고요히 하라.55년생 뜻밖의 재물운이 있다.67년생 자신의 영역이 커짐을 느낀다.79년생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을 쥐가 듣는다.91년생 정성을 다하면 수확은 분명 있다.

▶원숭이띠 32년생 출입을 삼가라.44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56년생 근심거리가 생기더라도 집착은 삼가라.68년생 내자신을 알고 맘을 고요히 하라.80년생 오로지 목표를 향해 전진하라.

▶닭띠 33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45년생 믿음아래 덕을 받는다.57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69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81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개띠 34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46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58년생 이사에 신중하라.70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82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돼지띠 35년생 부드러움을 잃지마라.47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59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71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83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